

# CALS newsletter

No. 31

2015. 3.

|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newslette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학래, 편집인 : 인동환

편집 : 대외협력 홍보위원회

(김태일·김현석·송명환·신천석·정진철·  
조철훈·허진희·Hong Sok(Brian) Kim)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남부학술림 방문-



성낙인 총장과 학장단

성낙인 총장은 이원우 법대학장 등 서울대 학장단 일행 30여 명과 2015년 2월 6일 전라남도 광양 남부학술림을 방문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성낙인 총장 일행은 남부학술림 주산시험장을 방문하여 기념식수를 하였다. 우리 대학 이학래 학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학술림이 산림과학분야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숲체험교육이나 진로캠프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학술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성낙인 총장은 현재 학술림이 겪고 있는 지역민과의 갈등과 소유권 문제에 대해, 학술림이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갈등이 학술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 2015년도 입학 · 졸업식

3월 2일 종합체육관에서 2015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올해 서울대학교 신입생은 학부과정 3,366명, 대학원과정 3,100명이다. 우리 대학 신입생은 학부과정 324명, 대학원과정 168명으로 총 492명이고, 산림과학부 김정서 학생이 농생대 동창회 우수 입학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2월 26일에는 제69회 전기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통틀어 학사 2,541명, 석사 1,714명, 박사 592명 등 총 4,847명이 학위를 받았다. 우리 대학은 학사 212명, 석사 78명, 박사 50명 등 총 340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고, 19명의 학생이 최우 등 졸업상을, 51명의 학생이 우등졸업상을 받았다. 전기최우수졸업상의 영광은 식물생산과학부 김석환 학생(09학번)에게 돌아갔다.



2015년도 입학식

### 〈주요내용〉

1~4면\_농생대 헤드라인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5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1면\_기금출연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터)

우리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새터가 2월 13일~2월 15일 3일 동안 강원도 속초 설악파인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13일에는 학과 및 교수님 소개, 학생회장단 인사시간이 있었고, 새내기 환영 공연이 진행되었다. 14일에는 각종 미션수행 및 대동놀이, 동아리 공연이 열려 환영회의 열기를 더했다. 15일 아침식사를 끝으로 모두들 아쉽게 작별하였지만, 선후배와 사제 간의 정을 다지는 즐거운 새터가 되었다.



## 대학생활안내 및 학부모 간담회 행사

우리 대학은 2월 10일, 201동 101호에서 2015학년도 농생대 신입생 및 학부모 300여 명을 모시고 대학생활안내 및 학부모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입생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학부모들을 위해 특별히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학래 학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 및 각 학부장, 학생대표들이 직접 학부모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교수 정년퇴임식

우리 대학은 3월 6일 대회의실에서 박승우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박승우 교수는 1984년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래 30여 년 동안 농업수자원 및 비점오염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간척사업과 대체수자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4년 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후진양성에도 노력하여 퇴임 까지 박사 20명, 석사 28명을 배출하였다.

## 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 - 농업생명과학대학 -

#### 최수정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부임



최수정 교수가 2015년 3월 1일자로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전공(농산업교육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최수정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주 전공은 직업교육이며, 이번 학기에는 고등직업교육론, 직업기술교육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모교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학자로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큰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이 자리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오면 언제나 친정처럼 마음이 편했는데, 교수로의 시작은 큰 중압감과 책무감에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연구와 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노력하고, 학생들을 배려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 김기석 교수,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부임



김기석 교수가 2015년 3월 1일자로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 공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했다. 김기석 교수는 충남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마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근무하였다. 주 전공은 농산가공 및 생체물성공학이며 생체물성공학, 농산가공기계, 수확후 공정공학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농산가공, 생체물성분야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줄곧 동일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그동안 좀 더 대중적인 연구에 대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어렵게 주어진 자리인 만큼 더욱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의 무게를 감수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학문 내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은사님들과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초심을 잊지 않고 정진하여 서울대학교와 전공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국제농업기술대학원 -

### 강진호 교수,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임



강진호 교수가 2015년 4월 1일자로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로 부임했다. 강진호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for Chemical Ecology와 연계하여 Friedrich Schiller University of Jen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후연구원, 본교의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주 전공은 식물유전체 및 식물방어이며, 작물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종자생명기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학생시절 저를 가르친 교수님들의 열정에 반해 조금이라도 닳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계속해왔는데 모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같이 연구하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모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길이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 시작하는 길은 연구에 교육이라는 더 큰 사명감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정과 폐기를 가지고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처럼, 저 또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연구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깨어있는 지식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병철 교수,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임



박병철 교수가 2015년 4월 1일자로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교수로 부임했다. 박병철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Cornell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Oklahoma State University, 미국 NIH, Columbia Universit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주)씨티씨바이오 중앙연구소, (주)CJ 사료 축산연구소, (주)선진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주 전공은 Applied Animal Nutritional Sciences & Technology이며, 가축비교소화생리학, 열대가축영양학, 바이오사료공학 등을 담당한다.

저는 1982년 자랑스러운 수원농대에 합격하였고, 2학년 때 축산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제대하였는데, 입대 전에는 의무적으로 하던 공부가 재미나게 느껴져 대학원에 진학, 한인규 선생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며 대학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 대학원 2년차에 국비유학생에 합격, 그 해 7월 미국유학을 떠났고, 1996년 1월 학위를 마치고 기나긴 박사후연구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모교에 두 차례 지원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모두 날리고 거친 광야에서 풍찬노숙을 하였으나 천신만고 끝에 많은 선, 후배 교수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회 주제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지난간 20여 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축산학과 출신답게 야수처럼 뛰겠습니다.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감히 바랍니다.

### 정동화 교수,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임



정동화 교수가 2015년 4월 1일자로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교수로 부임했다. 정동화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Rutger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박사 후연구원을 거쳐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 전공은 식품공학이며, 국제농산물가공학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인연이 닿아 제가 몸담았던, 은사님들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무지인 평창 캠퍼스는 정들었던 수원도, 중심부 관악도 아닌 생소한 곳이지만 위기와 기회, 과거와 미래가 팽팽히 맞선 묘한 마력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지만 인생의 중, 후반부를 즐겨 보기에 이만한 곳도 없으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평창 캠퍼스에 존경하는 농생대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준원 교수,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임



최준원 교수가 2015년 4월 1일자로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교수로 부임했다. 최준원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Pullman, WA)에서 박사후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업연구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농생대 산림과학부에서 기금교수로 재직하였다. 주 전공은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바이오리파이너리 분야이다.

8년 전 본지에 신임교수로 소개된 바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에 기금교수에서 전임교수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개원한 평창캠퍼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 새 둥지를 틀게 되어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가을 서울대학교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다짐했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캠퍼스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밀알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아울러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불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환경재료 과학전공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서울대 달걀, 들어보셨나요?

분주했던 한 학기가 끝나고 찾아온 겨울방학, 접속할 일이 많이 없던 학교 홈페이지에 오랜만에 들어가 본 농생대 구성원들이 받은 편지 하나가 있다. ‘달걀판매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이다. ‘평창실험목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달걀을 농생대 구성원에게만 판매하여 신청을 받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메일은 실험목장에서 생산된 달걀이 앞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탓에 농생대 구성원들은 실험목장 달걀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달걀에 대한 궁금증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험 목장은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점부터 ‘농생대 달걀은 과연 시중의 달걀과 다르기는 한 것인가?’라는 점까지 농생대 구성원이 달걀에 대해 가지는 궁금증은 다양하다.

### 첨단 시설을 갖춘 목장, 평창에 만들어졌다



줄어들면서 실험목장은 점차 제 기능을 잃어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평창으로 목장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2003년 강원도와의 협약으로 평창에 처음 건립된 이후, 실험목장은 현재 최대 닭 90,000수, 소 600두를 키울 수 있는 대규모의 첨단 목장으로 발전했다.

### 수익 사업의 첫 걸음, 왜 하필 달걀일까

학교가 법인화되면서 목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험 목장에서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니다. 실험목장을 총괄하는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임정묵 교수는 “목장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사업이 시작되었고 교육과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다”며 수익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 아래 실험 목장에서 달걀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인 2014년 2월이다. 달걀이 수익 사업의 첫 상품으로 선정된 이유는 단순했다. 임 교수는 “별도의 복잡한 처리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원재료 상품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마침 파일럿 사업을 시작한 닭을 이용할 수 있었고 달걀의 가공과정이 단순했기 때문에 달걀 판매를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여 말했다.

실험 목장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첫 상품인 만큼 달걀의 품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임 교수는 “실험 목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실험용 달걀을 판매한다는 의혹이 있으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실험 목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장점으로 크게 2가지를 꼽았다. 먼저 유통 경로가 짧다. 임 교수는 “양계장과 1·2차 집란장을 거치는 일반 달걀과 달리 유통 경로가 짧고 주문과 판매로 유통이 이루



집란장

어지는 만큼 신선도가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농생대 달걀의 판매 대상을 직접 배달이 가능한 농생대 구성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도 ‘Quality Assurance(품질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유통 과정을 단축하기 위한 배려이다. 생산 과정에서도 농생대 달걀은 일반 시중 달걀에 비해 강점을 가진다. 임 교수는 “실험 목장이 연구용 시설인 만큼 일반 양계장보다 사육환경이 깨끗하고 사육과정에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HACCP 인증을 받을 만큼 학교 밖에서도 생산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며 농생대 달걀이 가지는 장점을 힘주어 밝혔다.

### 사회와 대학의 공존을 위한 한 걸음, 수익 사업

서울대 법인화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우유와 서울대 초콜릿이 있다. 하지만 농생대 실험 목장에서 나온 달걀은 이 제품들과 차이가 있다. 이 두 제품이 ‘기술지주회사’를 거쳐서 출시되는 반면 농생대 달걀은 대학에서 직접 생산·판매하기 때문이다. 본 사업이 수익 사업이면서도 ‘사회공헌’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것도 학교가 그 생산과 판매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사회공헌이라는 가치에 대해 임정묵 교수는 “수익 사업을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라는 모토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달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환원은 ‘이웃과 더불어’를 실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달걀 판매를 통해 얻은 매출액의 10%가 사회에 환원되었고 남은 수익은 ‘교육지원’과 ‘연구지원’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윤창출’보다 ‘사회공헌’에 중점을 둔 만큼, 달걀판매를 통해 얻은 자금의 관리와 제반 사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도 일반 기업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 농생대의 수익 사업, 미래를 기대해볼 만하다

임정묵 교수는 “소와 닭을 포함한 모든 축산물로 수익 사업의 대상을 넓혀갈 것이고 최종 목표는 의약품의 부재료와 원재료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 농생대 실험 목장에서는 요거트와 치즈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수익 사업의 상품 목록이 넓어져도 농생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동일하게 실험 목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철저하게 ‘교육·연구·사회공헌’에만 쓰인다는 것이다.

판매를 개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농생대 달걀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사업의 확장을 얘기할 만큼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달걀에서 시작한 농생대의 수익사업이 ‘사회공헌’이라는 목표를 이루며 계속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최은국, 제4기 홍서정



## 평창군 고등학교 진로캠프

우리 대학과 평창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평창군 고등학교 진로캠프”를 2015. 1. 28. (수) ~ 1. 30. (금),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 캠프에는 봉평고, 진부고, 상지대관령고 학생 28명이 참여하였으며 농생대 CALSIAN 단원 및 대학원생이 멘토로 함께했다. 캠프기간 동안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검사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학습방법 소개, 진로계획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 수료식에서 28명의 캠프 참여자 모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열정상은 나현아(봉평고), 희망상은 김원오(봉평고), 우정상은 강종협(봉평고) 학생이 수상하였다. 팀별 우수상으로는 황의선(진부고), 진소희(봉평고), 원주향(봉평고), 황주영(봉평고) 학생이 수상하였다. 캠프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설정 및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전국대학학술림협의회 설립 현판식

사단법인 전국대학학술림협의회는 2015년 1월 29일 우리 대학 대회의실에서 설립기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현판식에는 우리 대학 이학래 학장(전국대학학술림협의회 회장), 이우신 학술팀장,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대학원 원종명 학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학래 학장은 환영사에서 학술림은 그 본연의 역할인 산림과학 교육과 연구활동에 충실했던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학술림협의회는 작년 11월 선정된 산림청 R&D 과제의 착수보고회를 동시에 개최하였으며, 학술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물상모니터링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2014년도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우수연구원 시상식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2015년 2월 12일 학장실에서 이학래 학장, 이상기 교무부학장, 이승환 연구부학장, 산하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조철호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우수연구원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Bijay Singh 선임연구원(축산과학기술연구소)이 최우수논문상을, 김현주 선임연구원(축산과학기술연구소)과 꽈유리나 선임연구원(식물생명과학연구소)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자에게는 격려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 학사졸업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2015년 2월 23일(월) 대회의실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졸업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본 시상식은 학사 학위논문의 내실화 및 우수 학위논문 작성 권장을 목적으로 2014년 2월부터 매년 2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상자는 2014년 8월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자였으며, 각 전공 별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15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학래 학장, 이상기 교무부학장, 전창후 학생부학장, 이승환 연구부학장, 안동환 기획부학장 및 전공주임교수들 이 참석하였다.

### ※ 학사졸업 우수논문상 수상자

곽준수(작물생명과학전공), 임주영(원예생명공학전공), 김우석(산업인력개발학전공), 김정은(산림환경학전공), 유동현(환경재료과학전공), 김주환(식품생명공학전공), 박진세(동물생명공학전공), 조은지(응용생명화학전공), 김명원(응용생물학전공), 김경인(조경학전공), 방재홍(지역시스템공학전공), 전찬우(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이소라(바이오소재공학전공), 전웅천(농업·자원경제학전공), 강충한(지역정보전공)



##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은 2월 23일(월) 교수회의실에서, 목운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장학금 수여식과 우수학문후속세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윤철희 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이학래 학장, 하종규 재단 이사장, 한인규 초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9명(서울대 18명, 고려대 1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장학금은 학부생 200만원, 대학원생은 250만원씩 지급되었으며,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 박상배 / 농업·자원경제학 이동훈 / 농업·자원경제학 최수안 / 산업인력개발학 유혜운 / 원예생명공학 이보영 / 생태조경학 허민주 / 환경재료과학 노상은 / 응용생명화학 양민우 / 동물생명공학 송은총 / 동물생명공학 융해인 / 동물생명공학 김승훈 / 동물생명공학 박민우 / 동물생명공학 김기락 / 지역시스템공학 여욱현 / 응용생명화학 이정학 / 바이오시스템공학 홍원선 / 작물생명과학 임연화 / 산림환경학 박민지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 김건희

우수학문후속세대 장학금은 대한민국 농학발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 졸업생 중에서, 농학분야에 진출하는 최우수 졸업생에게 지급된다. 이번 장학금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윤종원(바이오모듈레이션), 신성철(바이오소재공학), 김현(식물미생물학)

## 농생대의 든든한 조력자, 농업생명과학대학 홍보단 ‘칼시안’을 만나다.

### 단과대학 유일의 공식 홍보단

서울대학교에는 총 16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이하 농생대)은 그 중 유일하게 공식 홍보단이 존재하는 단과대학이다. 홍보단의 명칭은 칼시안(CALSIAN). 학생행정실 산하 입학진로정보실 소속으로, 농생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농생대의 대외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시안은 농생대의 약자인 CALS(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와 ‘정보제공자, 조력자, 인도자’를 뜻하는 Informer, Assistant, Navigator의 합성어이다. 즉, 농생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생대의 조력자임과 동시에, 학생들을 농생대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름의 의미에서 드러나듯, 칼시안은 대외 홍보를 통해 농식품산업과 농생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에 창립되었다. 농생대가 수원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바로 이듬해에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로 작년에 선발된 12기까지 총 134명의 재학생들이 칼시안을 거쳐 갔다. 매년 3월에 12~13명 정도의 신입단원을 모집하는 칼시안은 올해 14, 15학번 재학생을 대상으로 13기를 선발할 예정이다. 단체의 목적상 농식품산업과 농생대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중요하고, 이는 지원서 겸토와 면접에서 선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칼시안은 의무 활동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 해에 주로 활동하는 단원은 두 기수로 약 25명 정도이다.

### 방문홍보부터 진로탐색 캠프까지, 다양한 홍보 활동에 노력

칼시안의 가장 주된 활동은 고등학교 방문홍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전공뿐만 아니라 15개에 이르는 농생대의 모든 전공에 대한 지식이 필수다. 또한 좋은 발표가 되도록 발표자료 작성 및 원활한 발표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1학기 동안은 신입기수를 대상으로 면밀한 교육이 진행된다. 신입기수가 직접 자료를 구성하여 농생대의 필요성, 각 전공을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고, 선배기수가 멘토가 되어 피드백을 하는 식이다. 교육을 수료하여 각 단원들의 홍보능력이 숙달되면, 여름방학에 팀을 나누어 수도권지역의 고등학교를 선정, 방문한다. 이곳에서 칼시안 단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생대를 소개하고 입학전형을 설명한다. 겨울방학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도 칼시안은 CALS특강,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등 농생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의 진행과 보조를 맡고 있다. 방문학생들을 위해 견학 도우미가 되기도 한다. 특히 칼시안은 생명과학 체험학습, 고등학생 진로 탐색 캠프 등 농생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다.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학생 도우미로서 청소년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강사들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칼시안은 농생대의 대외 홍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경 칼시안 단장(작물생명과학 12)은 “농생대 내 모든 전공의 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단과대학에 봉사할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고 말했다.

### 칼시안을 이어주는 힘, 끈끈함과 자부심

칼시안 단원들은 첫 교육부터 시작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낸다. 이는 자연스럽게 단원들 사이의 유대를 돋독하게 한다. 모임 이생길 때마다 활동기수가 아닌 단원들도 적극 참여해 전 기수가 서로 어울려 지내고, 이는 칼시안만의 끈끈함으로 이어진다. 이런 끈끈함에 대해 우스갯소리로, ‘가족 같은 칼시안’ 이란 의미로 단원들을 ‘족끼’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한 칼시안에서는 선후배 간의 교류 강화를 위해, 학교를 졸업한 선배 단원들을 모두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매년 2학기 중에 개최하고 있다. 칼시안의 또 다른 힘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농생대에 대한 자부심이다. 김상경 단장은 “농생대의 모든 전공에 대해 알게 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의 소중함과 농생대에 대한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들어오게 되는 신입단원에게도 칼시안은 대학생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 자신한다”며 지원을 독려했다. 입학진로정보실의 남중수 조교는 “칼시안 단원들은 교육과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농업과 농생대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활동들이 농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박수범, 제4기 이형민



고등학교 방문홍보



칼시안 워크숍



고등학교 진로캠프

## 미래 농업인재 육성을 지휘하고 있는, 김병순 동문과 만나다!



김병순 동문 농교육학과(74)

김병순 동문은 농교육학과 74학번으로, 2009년부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병순 동문은 학교로 찾아간 기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나도 대학생 시절 농대에서 발행하던 상록학보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어 나를 인터뷰하러 온 기자단 후배들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난다”고 회상했다. 김병순 동문은 일찍부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학부생 시절부터 야학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농업교육이라는 특별한 길에 뛰어들게 된 이유를 묻자, 김병순 동문은 수학이나 영어처럼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진행되는 과목보다 실습이나 현장체험이 많은 농업교육의 특성에 매력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1978년에 모교를 졸업하고 광주농고의 교사로 부임하면서 농업교육계에 들어선 이후, 장성실업고, 강진농고, 구례농고 등을 거치면서 올해까지 무려 37년간을 오직 농업교육 한 길만을 걸어왔다.

### 교사 초년의 실수와 깨달음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하지만 이처럼 농업교육에 애정이 깊고 경험이 풍부한 김병순 동문도 처음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한다. 1978년 광주농업고등학교의 교사로 발령을 받고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3학년 학생들 앞에서 농기계 실습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다. 김병순 동문 자신이 학장시절 농업기계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 앞에서 자신있게 트랙터 시운전에 임했으나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후진을 할 때에도 자신이 생각한대로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고 정반대로 계속 움직여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트랙터 뒤에 트레일러를 달았을 때 운전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알지 못한 탓이었다. 그때 김병순 동문은 두 가지를 절감했다고 한다. 첫째는 자신의 실력이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날 이후로 김병순 동문은 다시 그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주말마다 학생들 몰래 트랙터 운전을 연습하였으며, 교사로 재직하는 도중에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학위를 받는 등,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켜보면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자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 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부심을 불어넣는 교육사상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1945년 설립되어 70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깊은 학교이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와 학교기업도 함께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경험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00ha라는 국내 농업관련 고등학교 최대의 부지 중 75.9ha를 실습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거의 모든 농작물과 가축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최고의 다

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여주자영농고만의 강점이다.

김병순 동문은 전대가 잘 마련해 놓은 이러한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여주자영농고의 학생들이 농업이라는 산업과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장으로서 자신의 최대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병순 동문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동아리 계획을 세워오면 100% 허가를 내 줄 뿐 아니라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학년 교과과정에, 학생들 개개인에게 일정 토지를 주고 자신이 경영농이 되어 1년 동안 스스로 계획을 세워 농사를 짓도록 하는 영농과제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모여 자신들이 흥미를 가지는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었다. 또한 무작정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현재 여주자영농고의 학생 수 대비 농업관련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농생대에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진학시키고 있는데, 올해도 1명이 서울대 농생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 더 많은 농생대 후배들이 땅과 더 가까워졌으면

김병순 동문은 농생대 동문들에게, “집로저스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경영대 강연에서 미래 최고의 직종은 농업이라는 말을 했다”고 언급하며 이처럼 농업은 비전이 뚜렷하고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유망산업인데, 현재 대학 교육과 대학생들은 실제 농업현장과 점



학교안내 &amp; 산학협약식

점 더 멀어지고 학생들 역시 이전에 비해서 점점 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농업은 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산업은 아니지만, 꼭 잘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그 결실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도 현장경험 없는 대학 지식만으로는 실제 농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절감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좀 더 농업현장에 관심을 갖고 땅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임기가 끝나면 교편을 접고 귀농할 생각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김병순 동문의 모습에서, 정말로 농업을 사랑하는 교육자이자, 선배이자, 농업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3기 김대욱, 제4기 나혜지

##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 열두 번째 주인공은 조경학 전공 윤희연 교수!

윤희연 교수는 2002년에 본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6여 년간 미국의 조경회사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그 과정에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생겨 2010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 입학, 2014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조경학 전공 교수로 임용됐다.



윤희연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조경학의 꿈을 꾸게 된 계기

윤희연 교수는 처음에는 과학자를 꿈꾸며 연세대 자연과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꿈이 약해지면서 의과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그때 친구로부터 조경학인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이후 그는 조경분야에 도전해보기로 했고, 본교 조경학과에 입학하면서 조경의 길을 걷게 됐다.

#### 윤희연 교수의 대학 시절

윤희연 교수는 “대학에서의 조경공부가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디자인과 설계 작업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다. 특히 대학교 3학년 때는 밤을 꼬박 새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테면 한 번씩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뿌듯함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고, 조경과 관련된 답사와 문화활동도 즐거워 정말 재밌게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 주 연구 분야

윤희연 교수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조경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옥외공간의 조달과 가치분석’이라는 이름의 대학원 강의를 새로 개설해 강의하고 있다. 그는 조경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자 한다. 그는 “조경이 낳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들을 밝혀 조경가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한다.

#### 윤희연 교수가 말하는 조경

조경학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그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다. 윤희연 교수에 따르면 조경은 땅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종합과학예술’이다. 그는 “조경이 주로 다루는 공간은 공공재인 open space이기 때문에 공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한편 사회적 문제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조경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의 영역도 포함한다.

#### 학부생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힘든 세상이니까 벼려라, 잘하고 있다.” 윤희연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 본교에 부임할 당시 학생들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패기 없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과외 서너 개만으로도 학비도 대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15년 전과 달리, 무척이나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학부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좀 더 진득함과 참을성,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책 저자 : 해리 덴트,  
역자 : 권성희)

#### 책 선정 이유

윤희연 교수는 Harry Dent의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를 추천했다. 윤희연 교수는 조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안에 관심이 많다. 미국 유학생 활동을 길게 하면서 세계 경제 동향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찍 깨닫게 되었다. 미국에 살면서 주식도 직접 사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으면서 경제의 흐름에 주목하게 됐는데 특히 인구통계학과 세계 경제의 관계에 흥미를 느꼈다.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는 세계 경제와 인구 통계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며 인구의 증감에 따라 경기는 4계절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윤희연 교수는 우리나라로 2018년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예상에 대비해 젊은 세대로서 어떤 경제적 관점과 갖고 행동할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윤희연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음 호의 주인공으로 추천받은 교수는 농생명공학부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서정용 교수. 서정용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2기 양준현, 제3기 오유진

(2015.02.10. 동아일보)

## 이기원 교수 “할머니의 30년 콩맛에 서울대 기술 같아 넣었죠”

6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실 안으로 180cm가 넘는 키의, 조고 같아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수인사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그가 바로 인터뷰를 하기로 한 이기원 교수(41·식품생명공학)였다. 화끗한 머리와 볼록 나온 배를 예상했는데 뜻밖이었다. 이 교수는 ‘콩박사’로 유명하다. 10년 넘게 콩을 연구해 왔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콩 화장품(이니스프리 ‘제주콩 자연발효 애센스’)을 만들었고, 농심의 ‘콩라면’ 역시 그의 손을 거쳤다. 지금은 배우 이영애 씨와 콩을 원료로 한 클렌저 화장품을 개발 중이다. 이 교수는 지난달 서울대 자회사인 밥스누(BOBSNU)를 통해 ‘약콩두유’를 내놓아 화제가 됐다. 이 제품은 예부터 해독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쥐눈이콩으로 만들었다. 설탕이나 과당 대신 느릅나무 껌질과 해조류에서 나온 천연물질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으로만 팔았는데도 시판 한 달 만에 30만 개가 팔려 나갔다. 약콩두유를 비롯한 콩 제품에는 이 교수의 숨겨진 집안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의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에서 30년 넘게 콩 음식점인 ‘피양봉황마니’를 운영해온 강산애 씨(87)다. 어린 시절 할머니 슬하에서 큰 이 교수는 콩비지를 참 많이 먹었다고 했다. 그때 그 맛과 할머니가 콩비지며 콩국물을 만드는 방식을 참고해 만든 것이 바로 약콩두유다. 이 교수는 할머니처럼 국산 콩을 사용하고, 영양소가 날아가지 않게 콩을 껌질째 깊었다.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커피처럼 콩을 로스팅(볶음)했다.

그는 콩이 건강이 좋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93세인데 매일 서울 강남에서 경기 의정부를 오가세요. 저녁마다 할머니 음식점에 가서 비자를 드시는데 그게 건강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선 콩이 들어간 음식에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표기를 할 수 있다”며 “현재 콩이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연구를 서울대병원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탈리아 음식에 두유와 잡 소스를 쓰는데, 생각보다 민망치 않다며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식당은 크기도 작고 인테리어가 세련된 것도 아닌데 월 매출이 4,000만~5,000만 원이나 됩니다. 제 식당은 전문가들이 다 불어서 해도 쉽지 않은데 말이지요. 이제와 생각해 보니 할머니가 콩을 손으로 일일이 골라내 음식을 만드시는 것에 세월과 철학이 함께 배어 있었더라고요.”

그는 “할머니의 철학과 노하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계속 콩 관련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2015.02.17. 동아일보)

## 이우신 교수 “미얀마 거머리에 물리며 희귀생물 70종 찾아”

이우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60·사진)가 11일 생물다양성 국제 실험기업 참석차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다. 이 교수는 2007년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에 관한 국제협력단(CUBECO)’을 구성해 9년째 이끌고 있다. 정작 그에게는 실포지엄 참석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얀마 정부 측에 국제협력단 산하 연구팀이 제작한 ‘생물도감’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이 224쪽짜리 컬러 도감에는 국제적 희귀종인 페이어스리프 원숭이, 킹코브라, 벼마날도마뱀붙이 등 척추동물 97종, 곤충 80종, 식물 100종 등 총 279종의 정보가 담겼다. 연구팀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이는 연구팀이 2011년부터 4년간 미얀마 중부 포파산 일대의 밀림을 살피며 뒤져 만든 노력의 결실이다. 환경부는 협력단을 통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이른바 ‘생물다양성 집중지역’에서 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나라들의 생태계 보전을 돋는 ‘국제 원조’인 셈이다. 나아가 미래 지원 중 하나인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2010년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자침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의된 것도 생물다양성 조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지요. 생물도감

을 제작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1년에 10회 이상 포파산을 비롯해 미얀마 일대를 탐사했다. 탐사 횟수가 총 50회를 넘는다. 도감에 포함된 식물을 포함해 미얀마 일대에서 연구팀이 처음으로 찾았던 생물자원은 70여 종에 이른다. 미얀마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과 국제적 신종을 포함한 수치다. 탐사는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았다. 우선 같이 일할 현지 전문기를 섭외하는 것부터가 큰일이었다. 지금은 민선 정부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미얀마는 군사정부가 통치했다.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은 연구팀이 현장조사를 벌일 때마다 감시단을 붙였다. 일거수일투족을 바로바로 기록하는 감시단은 존재 자체만으로 연구팀에 큰 스트레스였다.

이 교수는 “오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밀림에서 주막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작업하는 건 디凡사였다. 거머리에게 물려 팔다리가 통통 붓는 연구원도 있었는가 하면 중간에 데는 못하겠다며 떠나버린 연구원까지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 교수는 “생물다양성 조사 사업은 타지의 생물자원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미얀마인들 스스로가 생물자원을 보전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동남아국가 내 조사 지역을 넓혀가며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연 기자

(2015.03.10. 연합뉴스)

## [인터뷰] 김완배 서울대 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 과정장(서울대 교수)

농산업 관련 단체 및 업체 CEO를 대상으로 개설된 서울대 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 과정이 올해 4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 2012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개설한 이 과정은 그동안 실전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통해 21세기를 선도할 농식품 CEO들을 육성해 왔다. 김완배 과정장에게 서울대 농식품경영·유통 최고위 과정의 효과와 기대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대 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 과정은 농관련 단체 및 업체 CEO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졸업한 CEO들간의 공고한 네트워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크다고 확신합니다.”

김 과정장은 “농식품 경영·유통 분야의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농관련 단체 및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이 과정이 개설된 만큼 이 과정의 중요성은 이미 입증된 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과정장은 “농식품경영·유통 최고위 과정은 이 때문에 말 그대로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울 수 밖에 없다”며 “농신업체 CEO들에게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CEO 스스로 생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이 과정은 졸업한 CEO들이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을 응용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사례가 나오고 있고, 특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 사업을 확대시켜 이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고 홍보해 했다.

또 김 과정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휴먼네트워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을 졸업한 CEO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도움을 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특히 각 과정의 기수별 모임을 비롯해 전체 기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정장은 “공개강좌는 평생교육자원에서 이미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한몫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경민 기자

##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기금출연 소식

###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기금출연 (2015. 01. 01 ~ 2015. 03. 31.)		누적금액 : 66,800,000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주)이피텍 서진호	주네이처그로 한성T&I	3,000,000 3,000,000
30,800,000 20,000,000 10,000,000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기금출연(2000. 01. 01 ~ 2014. 12. 31.)		누적금액 : 5,512,400,000원
(유)PPG코리아	고종열 (87)축산학(박사)	김영권 농학
(재)목문화재단	고희중 (76)농학	김영도 (68)축산학
(재)유연장학회	고희중, 김성남, 안희성, 노희명 기부보험	김영배 (85)축산학
(주) 녹색식물연구소 (78)원예	만기액	김영복 (72)농공학
(주) 프로밸코리아	광주MBC	김영상 (58)농학
(주)내츄로바이오텍	구자환 (81)농학	김영성 (59)농경제학
(주)넥스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김영호 (73)농생물학
(주)생명의나무	권숙황 학부모	김유웅 (83)축산학
(주)서울신문사	권정현 (60)농학	김유용, 윤원희
(주)숲에서	권철 (59)축산학	김인식 (64)농학
(주)신농	김경우 (68)농공학	김장원 서울대직원
(주)아데나	김관수 (82)농경제학	김정한 (75)농화학
(주)케이티앤피	김광호 (68)식품공학	김중무 (59)농학
(주)하이스	김국형 (83)농생물학	김진모 (81)농업교육
(주)엘씨에스	김규욱 학부모	김진우 (2006)산림과학부
53학번 동기회	김근숙 농화학	김진의 (59)축산학
59학번 동기회(재미회원)	김기선 (74)원예학	김태수 (66)임학
69학번 동기회	김동암 (52)축산학	김현중 (83)임산공학
69학번 여성동기회	김동운 (48)농경제학	김호탁 (58)농경제학
70학번 동기회	김동태 (62)농경제학	김희발 (86)동물자원과학
71학번 동기회	김명종 (70)임산공학	나승일 (81)농산업교육
81학번 원예동문동기회	김무열 (64)농공학	노희명 (76)농화학
가나바이오텍(주)	김민균 (82)농화학	농생대 기획실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김병동 (62)농학	농생대 등창회
강미정 농가정학	김봉영 에버랜드사장	농생대 수목원
강병철 (86)원예학	김상곤 농업교육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강석근	김상돈 (44)축산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강신백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직원	김석구 (55)임학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강예완 학부모	김성배 (85)농생물학	농학과 동기회
강청희 (66)농경제학	김성수 (63)농업교육	농협중앙회
고 강석권, 고 최하자 유족	김성일 (76)임학	농화학 등문화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김수민 (2003)환경재료과학	도운희 (61)농화학

## 기금출연(2000. 01. 01 ~ 2014. 12. 31.)

원광엔에프디㈜ (86)농화학	이은규 (77)농학	정일영 (62)축산학	㈜아레웰	현진호 (88)천연섬유학
월후식 (56)농생물학	이원주 (63)잡사학	정종훈 (77)농공학	㈜이지코스	호영하이텍
유상렬 (78)식품공학	이용창 父 (99)생물자원공학부	정주상 (77)임학	㈜장수로	홍상욱 (83)원예학
유상철 (64)축산학	이용환 (79)농생물학	정진구 (65)농공학	㈜지이오플	홍인식 (79)원예학
유원에코사이언스	이우신 (75)임학	정진화	㈜지지에프바이오	홍중일 (80)축산학
유원에코사이언스(주)	이인모 (65)농경제학	정현석 (63)농화학	㈜추비로	홍종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유한길밸리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정희석 (60)임학	㈜투플러스코스팜	화인엔터프라
윤계섭 (53)임학	이장희	제10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프로챌코리아	환경지도자고위과정
윤여창 (74)임학	이재갑	제11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하이스	황인규 (76)농생물학
윤웅인 (57)농기정학	이재진 (65)농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한국에그로바이오	CALSP
윤원희 김유용교수부인	이전제 (70)임산기공학	조도현 서울대직원	㈜한성T&I	KBS한국방송
윤의건설	이정식 (69)원예학	조민성 父 (97)농경제학사회학부	㈜해남테크	MBC문화방송
윤혜정 (90)임산공학	이정훈 父 (2000)식물생산과학부	조성인 (77)농공학	㈜현우그린	RNL생명과학(주)
윤회진 (62)축산학	이종영 (70)임산기공학	조재영 (39)농학	㈜IFC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이건호 (67)농경제학	이준호 (74)농생물학	조종수 (66)잡사학	㈜SK텔레콤	고려시스템
이경국 (78)	이중웅 (77)농공학	(주) 이관희 프로덕션	직업과정CEO 과정	㈜한성T&I
이광희 (75)농학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주)고추와육종	진정우 학부모	우상규
이기훈 (91)천연섬유	이철우 (61)농경제학	(주)내츄로바이오텍	차상석 연세대	한국방송공사
이내수 (58)농경제학	이춘만 (73)임학	(주)녹색식물연구소	창업지원센터	㈜고추와육종
이동구 (65)임학	이충한 (2009)동물생명공학	(주)노보	체수근 (64)잡사학	이종윤(고이진욱 父)김덕연
이동근 (82)조경학	이태호 (74)농경제학	(주)밀투밸런스	채영암 (60)농학	(주)에이티랩
이동찬 (82)농공학	이필우 (53)임학	(주)바이오포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제노래버코리아
이두이 (66)농학	이현강 (69)임학	(주)베스트텍코리아	최고농업정책과정 14기	한국마사회
이득용 (52)농경제학	이현수 (60)농화학	(주)블루비에스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프로챌코리아
이명훈 (69)농경제학	이형주 (66)농화학	(주)블루인바이로먼트엔텍	최상호 (78)식품공학	(주)누보
이무하 (67)축산학	이홍 (70)농화학	(주)비르엔마이크로	최연홍 (56)잡사학	(주)베스트텍코리아
이미경 (74)농화학	이희석 (75)농생물학	(주)비비씨엔에프	최윤재 (73)축산학	(주)서울신문사
이미순 (56)농학	이희재 (78)원예학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	최인규 (80)임산공학	(주)한성T&I
이병근 (67)농경제학	일본동문회	(주)생명과기술	최정우 父 (2000)생물자원공학부	㈜누보
이병목 (64)농생물학	임경순 (54)축산학	(주)센소메트릭스	최진웅 (84)농공학	㈜두타연
이병일 (57)원예학	임승빈 조경학 교수	(주)숲에서	최학근(최윤희 학부모) (10)응용생명	㈜비비씨엔에프
이병창	임용재 (67)농경제학	(주)신택	최총립 (71)농공학	㈜블루비에스
이삼휘 (66)농화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주)씨아피인텔리전스	튜플러스코스팜(주)	㈜엘씨에스바이오텍
이상기 (79)농화학	임정국 동물생명공학 교수	(주)씨에스텍	패션푸드(주)	오평환장학금 기본 적립
이상영 (65)잡사학	장우상 (63)잡사학	(주)아데나	프로챌코리아	(주)고추와육종
이상우 (89)임학	장진성 (78)임학	(주)에스씨아이	피타코이드(주)	배동걸
이상훈 (88)조경학	장창순 (53)농경제학	(주)에스씨에프	허종규 (75)축산학	창업지원센터
이석하 (78)농학	장태평	(주)에스이오	한국마사회	농식품 경영유통최고위과정3기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장학균 학부모	(주)에이티랩	한국전파기자국(주)	유상렬
익명 (71)	장희동 (59)농경제학	(주)에이피디	한상율 (72)농업교육	김경욱
이수정 (65)농기정학	재일동창생	(주)에코엘리디라이트	한성T&I	김학진
이승구 (66)농화학	전창후 (83)원예학	(주)에프엔피	한재옹 (80)축산학	
이승환 (80)농생물학	정구민 (84)축산학	(주)여러분의 천년초	한준호 (64)임학	
이시혁 (80)농생물학	정민섭 (59)임학	(주)오리엔탈드림	현의승 (61)잡사학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정윤환 (56)임학	(주)유원테크	현정오 (66)농생물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 People 농생대 사람들

## [동문동정]

- ▶ 장중석(농공학 80) 동문이 1월 2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에 임명되었다.
- ▶ 김학원(농공학 77) 동문이 1월 2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품질원장에 임명되었다.
- ▶ 권재홍(농업교육과 83) 동문이 1월 23일자로 농협 영주시지부장에 임명되었다.
- ▶ 이길수(농생물학 80) 동문이 1월 23일자로 농협 여주시지부장에 임명되었다.
- ▶ 남성우(축산학 69) 동문이 2월 2일자로 농협대학 총장에 임명되었다.
- ▶ 강장수(농생물학 83) 동문이 2월 11일자로 한국특허정보원 정보진흥본부장에 임명되었다.
- ▶ 김필권(농업교육과 76) 동문이 2월 16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되었다.
- ▶ 박정현(농생물학 82) 동문이 2월 16일자로 KT&G 인천·경기본부장에 임명되었다.
- ▶ 김기덕(조경학 77) 동문이 2월 23일자로 부산지방우정청장에 임명되었다.
- ▶ 박상규(농화학 78) 동문이 3월 1일자로 대구대학교 생명환경대학장에 임명되었다.

## [교수동정]

▶ 농생명공학부 이광범 교수는 곤충생리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Journal of Insect Physiology』(영향지수: 2.5)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으로 선임되었다.



▶ 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 교수는 농업경제학 및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Agribusiness : an International Journal』(영향지수: 0.5)』



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으로 선임되었다.

▶ 농생명공학부 유상렬 교수는 1월 9일자로 과학기술한림원 신임 정회원에 임명되었다.



▶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는 2월 25일자로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동창회 소식]

- ▶ 2014년 상임부회장 제2차 회의 및 동창회 송년회



농생대 동창회는 2014년 12월 29일(월) 오후 5시 참배나무골에서 2014

년 상임부회장 제2차 회의 및 동창회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현수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류관희 수석부회장, 이학래 학장 등 총 26명이 참석하여 2014년도 경과보고를 하고 장학위원회 구성, 상록탑과 상록인 명예의 전당 보완공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도록 덕담을 나누며 2015년 새해인사회 개최를 안내하고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서로 독려해 주기를 부탁하며 모임을 마쳤다.

- ▶ 2015년 새해인사회 개최



농생대 동창회는 2015년 1월 13일(화) 농생대 201동 101호 대강당에서,

64학번 동문들이 주관하여 150여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해인사회를 개최하였다. 농화학과 동창회가

2014년도와 같이 신년교례회를 통합하여 자리를 함께해주어 더욱 많은 동문들이 올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한 기쁨의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 ▶ 2015년 1학기 상록문화재단 및 일성장학금 수여식



2015년 2월 25일(화) 오전 11시 농생대 203동 101호에서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및

일성장학금의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장학금을 받는 학부생 43명, 대학원생 20명과 고등학생 8명이 참석하였으며 동창회장 및 장학금 제공자와 모교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장학금 수여행사는 대학원생은 1인당 250만원, 학부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씩 총 71명의 장학생에게 총 1억 4,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상록문화재단은 장학금 명칭에 장학금을 출연한 선배들의 이름을 붙이고, 장학금 출연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우 독특하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수여식에 참석한 전원은 식이 끝나고 두레미담에서 축하오찬을 하였으며, 고등학생들은 오후 1시부터 200동 2층 입학진로정보실에 모여서 농생대 안내를 받았다.

★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jhw1234@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림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물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드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팀 T.880-4526 F.873-2031  
실험무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작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증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공방생물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유증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유증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쟁·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32-916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